

거리두기 완화·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여행객 '들썩'

한국-사이판·싱가포르 트래블 버블협정...여행사 상품 출시
하나투어 광주지점 "최근 허니문 등 하루 10건 가량 문의"

백신 접종률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기대감에 여행객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사이판과 최초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구역) 협정을 맺은 후 올해 사이판 여행 패키지가 완판된 것

으로 알려지는 등 그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던 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하나투어 광주지점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5-10건의 해외여행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체보다는 개인 단위 문의가 더 많으며 대부분 내년 해외여행이나 허니문 여

행 등에 관한 것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이 거의 전무했기에 '트래블 버블' 협정 등으로 여행 가능성이 열린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서울쪽은 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관한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약 2년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여행객들의 보복 심리는 물론 백신 접종 완료자 증가 등도 여행 문의가 많아진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우수 지역 간에 두 국가 이상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이 협약이 체결되면 해외여행객들의 가장 큰 걸림돌인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제되는 등 입국 제한조치가 완화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사이판과 첫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후 최근 싱가포르와도 트래블 버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 국민들은 격리 부담 없이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개인·단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하다.

싱가포르항공은 올해 11월16일 인천에서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는 항공편을 띄운다.

이 같은 여행 문의 급증 및 예약 증가 등에 따라 여행사들은 1년 반 넘게 휴직한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모으고 있다.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선두적으로 지난 10월1일 전직원 정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여기에 여행사들은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강조하며 여행 상품 기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투어는 '백신맛고 떠나요, 자가격리 없는 싱가포르', 'PCR음성이려면, 떠나자', '백신접종 출발', '자가격리 없이 바로 떠날 수 있는 여행지', '이제 곧 만나요! 치앙마이 골프' 등 빠르면 이번 주에도 출발할 수 있는 해외여행상품을 판촉하며 모객에 열중하고 있다.

모두투어도 '자가격리 면제국가', '안심케어 테마 여행', '백신 접종하셨나요?' 등의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여행' 테마 상품들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양서원기자



한산한 선별진료소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가 내달 조심스러운 첫발을 땀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재리기자

'단계적 일상회복'...광주·전남 사적모임 10명까지 허용

식당·카페 '밤 12시' 영업 완화...유흥시설은 제외

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광주·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 기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 식당·카페 영업제한이 24시까지 허용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하지만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시·도민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17일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이다.

이는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교통 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고,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준비와 점진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하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됐던 식당·카페 영업도 자정까지 2시간 완화했다.

단,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딩룸)

의 경우 오후 10시로 기준과 동일하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집중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집중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 행사·집회는 집중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집중완료자는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

률이 80%를 넘어섰고 이달 말까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주말인 16-17일 이틀간 43명(광주 12명·전남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승지·임후성기자

Today

地選 전·현직 공무원 대거 출사표	3면
'약호호남 시무독도' 2021 특별전	7면
광주 페퍼스 내일 홈 개막전	16면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57% '하위권'

송갑석,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 제안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57.1%로 17개 시·도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이 17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7.1%로 전국 평균 85%에 한참 못 미쳤다. 제주 15.1%, 강원 55.5%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의 보급률은 광주 99.7%, 서울 97.6%, 대구 97.3%, 울산 95.9%, 부산 95.5%, 인천 92.3% 등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은 각각 70%, 68.2%, 경남과 경북은 각각 79%, 67.6%였다.

전남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향상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스관 연결 배관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수요가구의 밀집도가 낮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자가 배관을 설치해도 가스 판매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갑석 의원은 그 대안으로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처음 실시된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한 개념이다.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한데, 배관망 설치 등 가스 공급망 구축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전기 및 열 판매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렇게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되면 주민들은 도시가스와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김진수기자

'기습 한파'...내일 오후 예년 기온 회복할 듯

18일 광주·전남에서 출·퇴근 하는 이들은 다소 두터운 외투로 '반짝 추위'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18일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17-19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6도 이상 낮은 수치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추위는 19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예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다.

이날 아침 기온은 5-12도, 낮 기온은 15-18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2.0-4.0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습 한파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농작물 냉해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깨끗한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태양광 바람으로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맑은 하늘을 약속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로 열어가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